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4. 2. 27.(화) 14:00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경 상 북 도 의 회

(최 덕 규 의 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연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 道의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따른 사항을 규정했고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상북도 크루즈산업발전 위원회’를 통해 크루즈산업 발전정책과 전략 및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하여 재정적 지원근거와 처리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무위탁과 포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크루즈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선용품 해외 수출,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 세계 크루즈관광의 수요만 하더라도 2010년 1,780만명에서 2019년 2,970만명으로 매년 5.3%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특히, 2010년 이후 중국인의 크루즈관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북미와 유럽과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크루즈 목적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8월,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 터미널이 확장·준공되면 10만톤 이상의 대형 크루즈 선박의 입항이 원활하게 가능하게 되어 체계적인 크루즈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연관산업 발전 등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크루즈 관광 산업이 세계 각국의 방역정책 완화로 대부분 재개되었고 우리나라도 2022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 ‘크루즈선 운항 정상화’ 조치와 해양수산부의 「제2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경북도가 해양관광산업의 최적지로 도약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27.

최 덕 규 의원